

# 冊板目錄을 통해본 조선시대 善山지역의 목판인쇄문화 연구

A study on Woodblock Printing of Seonsan Region in Joseon Period through the Catalogue of the Woodblocks

옥 영 정 (Ok, Young-jung) \*

## ◁ 목 차 ▷

1. 서 언	3.1 선산의 冊板目錄과 「善山府所在冊板記」
2. 선산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	3.2 조선전기 간행서적
2.1 선산의 역사와 지리	3.3 조선후기 간행서적
2.2 문화적 특성과 학맥	4. 결 언
3. 선산지역의 목판인쇄문화	<참고문헌>

## < 초 록 >

이 연구는 조선 시대 각 지방의 출판 문화 활동을 파악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영남 사립의 근원지로 알려진 경북 선산지역의 목판인쇄문화를 책판목록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조선 시대 이전의 역사 기록과 실물 자료를 바탕으로 선산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책판 목록에 수록된 간행된 서책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책판목록에 수록된 다른 지역의 간본 연구를 체계화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선산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책판 목록을 조사하여 종합화하였으며, 그 다음에 개별 서책의 간행 상황을 밝혀서 선산 지역에서 간행된 목판 인쇄 문화의 전체적 상황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조선 전기 12종, 조선 후기 32종의 간행 서책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산 지역의 책판 목록으로 새롭게 알려지는 「善山府所在冊板記」에 대한 소개와 함께 편찬체제, 작성시기와 그 배경, 수록 책판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선 시대에 전국 郡 단위 이상의 각 고을 마다에는 대부분 책판이 소장되어 있었고 서책을 간행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를 지역의 문화 유산이나 전통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연구와 같이 실제 간행된 서책의 규모, 종류, 실존 여부 등을 파악하는 중간 단계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要語 : 冊板, 冊板目錄, 善山, 地域出版文化, 善山府所在冊板記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조교수 (gabinja@aks.ac.kr)

접수일: 2006년 8월 11일 최초심사일: 2006년 8월 13일 심사완료일: 2006년 9월 22일

<ABSTRACT>

A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publishing culture of every region in the Joseon period, this study analyzes the Catalogue of the Woodblocks to examine the woodblock printing in Seonsan, Gyeongbuk Province, which was well-known for Youngnam Confucian Scholars.

First of all, in this study, based on the historical documents and the actual inspection of books, histor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eonsan region is reviewed. Then, the contents of books mentioned in the Catalogue of the Woodblocks are specifically discussed. It could help describe the printing situations of individual publications, and understand better the general situation of woodblock printing culture in Seonsan region.

Twelve titles of books published in the early Joseon, and thirty two titles of books published in the late Joseon are finally confirmed. Most of them are the Confucian classics and educational books compiled in the early Joseon period. Compared with the late Joseon, the majority of printing blocks made at private residences focused on the private collection of local works or the authentic record. Also, this study introduces 「*Seonsan-Bu Sojae Chaekpanki*」 recently known as the catalogue of the woodblocks located in Seonsan, and examines its editorial style, the period and background of its publication, and the contents of printing blocks listed in the book.

In the Joseon period, most provincial districts collected their own printing blocks, and printed books with them. Some of those blocks have been handed down until now. In order to inherit, preserve and develop them as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tradition, more research on the scale and types of publications and the investigation on their existence should be conducted.

Key words : Woodblocks, the Catalogue of the Woodblocks, Seonsan, *Seonsan-Bu Sojae Chaekpanki*, woodblock printing

## 1. 서 언

최근 들어 지방사 연구에 관심이 커지면서 고인쇄사 분야에서도 각 지역의 전반적 서책간행 활동을 비롯하여 서원과 향교의 간행본, 지방의 목활자 인쇄의 경향과 특징에 대한 연구, 각 지방 소재의 책판 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서책 간행에 대해서는 지리적 범위가 넓고 여러 고을을 포함하고 있는 큰 범위의 지역을 다룬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근래에는 비교적 작은 범위의 고을에 대해서도 출판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되기도 하였다. 이는 지역의 서책간행활동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해당지역의 출판문화를 새롭게 조명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선시대 각 지방의 출판문화활동을 파악해보는 연구의 일환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이지만 영남사람의 근원지로 알려진 경북 선산지역의 목판인쇄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산지역의 일반적인 역사와 문화를 언급하고 있는 연구는 많이 있지만 고인쇄문화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거의 없다. 또한 한국의 고인쇄문화사를 거론할 때 각 시대나 판본 등을 기준으로 선산지역의 간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었지만<sup>1)</sup>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으며, 간기가 남아 있는 자료가 드물기 때문에 실물자료로서 언급도 제대로 되지 않은 실정이다. 즉 선산지역의 목판인쇄에 대한 언급은 기존의 지역적 연구에서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을 뿐 고문헌의 간행지역으로서 선산의 판본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다만 최근 들어 구미문화원, 금오공대의 선산문화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선산지역의 문화재나 인물에 대한 일련의 조사와 연구<sup>2)</sup> 등에서 그나마 선산을 중심으로 한 자료로서 목판인쇄문

1)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探求堂, 1966).

柳鐸一, 『韓國文獻學研究』(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서울: 범우사, 1991).

2)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문화원, 『2005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실태조사』(구미: 구미문화원 2005).

금오공대 선주문화연구소 편, 『아은 길재의 학문과 사상』, 선주문화연구총서 1 (구미: 동연연구소, 1994).

화를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정보를 일부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지방의 고인쇄문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범위가 큰 몇몇 지역이나 더 큰 범위의 지방 및 전국 규모의 조사 연구<sup>3)</sup>에서 선산의 책판에 대한 규모와 종류를 언급하고 있다.<sup>4)5)</sup>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종합화하여 선산지역 목판인쇄의 경향과 면모를 알아본다는 의미에서 각 시기별로 간행된 서적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특히 선산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책판목록을 종합화하고 개별 서적의 상황을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선산지역의 책판목록으로 새롭게 알려지는 「善山府所在冊板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책판목록의 편찬체제, 작성시기와 그 배경, 수록책판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선산지역 간행 서적의 범위는 조선시대 이전으로 한정하였으며 역사기록과 실물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책판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선산 간본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서 이를 체계화할 것이다. 이는 책판목록에 수록된 다른 지역의 간본연구를 체계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冊板目錄 이외에 기존의 誌志나 歷代書目에 나타나는 선산의 간행서적, 현전하는 선산의 간행 서적 등을 바탕으로 시대별 간행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선산지역 간본의 특성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 
- 3) 金致雨, “朝鮮朝 前期 地方刊本の 研究-冊板目錄 所載의 現存刊本 을 中心 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학원, 1999).
  - 4) 윤병대, “한국의 書目에 대하여,” 『圖書館·情報學論集』, 창간호(1984.4) 9-39.  
윤병대, “韓國地誌 속의 冊板에 대하여,” 『古書研究』 12, (1995.12) 33-50.
  - 5) 金致雨, “『嶺南冊板記』所載 刊本の 分類의 傾向,” 『書誌學研究』, 제24집(2002.12) 279-309.  
조정화, “朝鮮朝 後期 嶺南 官板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학원, 1996).

## 2. 선산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

### 2.1 선산의 역사와 지리

선산은 경상북도 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동쪽은 군위, 서쪽은 김천, 남쪽은 칠곡, 북쪽은 상주, 의성과 접하고 있다. 본래 신라의 一善郡이었는데, 진평왕 36년(614)에 沙伐州(지금의 경상북도 尙州)와 甘文(지금의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에 있던 州治所가 이곳으로 이동해 오면서 一善州로 개편되었다. 신문왕 7년(687) 3월에 일선주를 파하고 다시 사벌주로 옮겨갔고, 경덕왕 16년(757)에 崑善郡으로 개칭되어 軍威縣, 孝靈縣, 爾同兮縣을 속현으로 하였다.

일선군의 毛禮의 집에 눌지왕 때에는 墨胡子가, 소지왕 때에는 阿道가 와서 불교를 전하기도 하였으며 한국의 불교문화가 싹을 틔운 곳으로 고구려의 불교 문화가 신라에 전해지는데 길목 역할을 한 지역이기도 하다.

후삼국시대에 들어서 이 곳은 후백제와 고려의 각축장이 되었는데, 907년(효공왕 11) 견훤이 일선군과 그 남쪽 10여 성을 점령한 이래 후백제의 영역에 들어감으로써 후백제가 경상도 북부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고려시대인 성종 14년(995)에는 善州로 개편되어 刺史가 임명되었다가 현종 9년(1018) 상주목에 속하였으며 인종 21년(1143) 일선현령을 두어 효령, 군위, 해평 등 3개현이 一善의 속현이 되었다. 뒤에 일선현령은 “知善州事”로 승격되고 공양왕 2년(1390)에 효령, 군위에 監務를 설치함에 따라 일선에서 분리되었다.

특히 우왕 5년(1379) 9월에는 海印寺에 소장되어 있던 歷代實錄 및 經史諸書를 善州 得益寺에 옮겨 보관한 기록이<sup>6)</sup> 남아있다. 왜구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때 옮겨진 고려실록과 경사제서는 이후 잇따른 왜구의 침입으로 甫州(경북 예천) 普門社, 忠州 開天寺, 죽주 七長寺 등으로 그 보관처를 옮기게 된다. 특이사는 선산의 伏牛山에 있었던 사찰로 지금은 폐사가 되었으며 선산부에서 25리

6) 「高麗史」卷134, 列傳47 辛禰 5年 9月.

「新增東國輿地勝覽」卷29, 善山都護府 佛宇 得益寺.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sup>7)8)</sup>

조선시대에는 태종 13년(1413) 지방제도 개편시 선산군으로 개칭되었고, 2년 뒤인 1415년 4월에 주민이 1,000호 이상이 되어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당시 이곳의 토지는 비옥하였으며 풍속은 화려하고 학문을 좋아하였다고 한다. 한편 고려 후기 이래 이곳의 선산김씨, 해평윤씨, 해평길씨 등이 명문으로 등장했고, 吉再의 성리학이 金叔滋, 金宗直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어 ‘人才의 寶庫’인 영남지방 중에서 “영남의 인재 가운데 반은 선산에 있다(嶺南人才 半在一善)”<sup>9)</sup>라는 말도 나오게 되었다.

한편 세종 32년(1450 文宗即位年) 12 월에는 善山府 得益寺 소장의 大藏經 3800 권을 일본에게 내려주라는 기록으로<sup>10)</sup> 당시 득익사의 소장처로서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적에 관한 10가지 조목을 진한 양성지는 제4조목으로 사고보관 서책의 화재 및 왜구의 침입을 우려하여 전주사고를 남원의 지리산, 성주사고를 善山의 금오산, 충주사고를 淸風의 월악산에 옮길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sup>11)</sup>

선조 34년(1601) 8월 역모사건으로 선산이 역모 주모자의 출생지라 하여 당시의 선산부사가 파직되고 도호부에서 縣으로 강등되는 사건이 있었으며 이후 주모자가 개령(지금의 김천시 개령)사람으로 판명되어 다시 도호부로 환복되기도 하였다.

7) 권상로, 『退耕堂全書』 권 2, 韓國寺刹全書 上, 1990, 511.  
8) 우왕 6년(1380) 왜구가 黃澗, 禦侮(慶尙道 金山), 中牟, 化寧, 功城, 靑利 등의 현에 방화하고 그 세력이 상주와 선산까지 미치자 다시 甫州(경북 예천) 보문사에 옮겨 보관되었다. 그 이듬해 7월에 다시 왜구가 영해지방으로 들어와 안동을 침범하자 경상도 안렴사가 보주 보문사에 소장한 역사서적들을 內地로 옮기기를 청하여 사관을 보내 충주 개천사로 옮기게 된다. 약 2년간 충주 개천사에 보관했던 실록은 우왕 9년(1383) 왜구가 단양 제천 酒泉 평창, 영주, 순흥 등지에 침입하여 竹州(京畿 安城郡 竹山里) 七長寺에 옮겼으며 공양왕 2년(1390) 6월에 왜구가 양광도에 침입하여 음죽, 음성, 안성, 죽주, 괴주에 이르러자 이해 12월 다시 충주 개천사로 옮겨졌다. (高麗史 卷135 列傳48 辛禡 9年 6月, 新增東國輿地勝覽 卷8 竹山縣 佛宇 七長寺 權近送斐仲員修晒史序, 同卷4 忠州牧 佛宇 開天寺.  
9) 金宗直, 『佔畢齋集』 卷7, 五言詩  
10) 『文宗實錄』 卷5, 文宗即位年 12月 癸未.  
11) 梁誠之, 『訥齋集』 卷3 奏議書籍十事.

그 후로 갑오개혁 직후인 1895년에 소지역주의가 채택되어 23 부제가 실시되자, 군이 되어 대구부에 속하였다가 다음 해에 13도제의 실시에 따라 3등군으로서 경상북도 선산군이 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후에도 선산군으로 유지되었는데 현대에 이르러 구미와 행정관할 구역의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몇 차례 변동이 있었다.

현재 행정적으로 선산을 포함하고 있는 구미는 조선 초기에 선산도호부 남면의 관할이었고, 1914년 구미면, 1962년 읍으로 승격되었다. 1970년대에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인접군과 행정 관할 구역의 조정이 있었는데 1978년 구미읍일원과 인동면이 합해져서 구미시로 승격되었다. 1983년에 칠곡군 북삼면 오태동을 구미시에 편입, 1995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하여 선산군이 구미시에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지금은 선산읍이라는 행정지명이 있다.

## 2.2 사회문화적 배경

한 지역의 출판문화를 이루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서적을 간행하고 보급하는 능력을 지닌 개인이나 단체의 성격에 의해서 그 주제나 규모가 정해지는 경향이 많다. 당시의 학문적 기반을 이루고 있던 양반가문이나 교육기관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선산지역은 고려말 성리학이 전래되면서 시작된 한국의 유교문화의 터전으로 자리매김 되었는데, 이는 고향이 선산인 길재가 정몽주와 이색, 권근의 문하에서 성리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였고 성리학의 적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그가 고향에 은거한 이후로 그에게 배우기 위하여 많은 유학자들이 선산을 찾아오고 후진을 양성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자연스럽게 많은 인재를 배출한 선산지역은 타지방보다 서원이 일찍 건립되었으며, 1547년 창건된 오산서원을 필두로 그 수도 서원철폐령이전까지 무려 17개나 되었고 사액서원도 4개나 되었다.

정조때 유생 金光洞 등이 선산의 낙봉서원(同藝 金叔滋 를 배향)에 사액해줄

것을 청하는 상소를 통하여 성리학맥과 관련된 선산지역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 동방의 성리학은 사실 文忠公 鄭夢周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정몽주에게서 재차 전해지면서 고 사에 김숙자를 얻었고 또 재차 전해지면서 文敬公 金宏弼, 文正公 趙光祖를 얻었는데, 이는 신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文純公 李滉이 일찍이 중국 사신의 물음에 대답하기를 ‘정몽주는 吉再에게 전하고 길재는 김숙자에게 전하고 김숙자는 그의 아들 金宗直에게 전하고 김종직은 김굉필에게 전하고 김굉필은 조광조에게 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斯文의 계통에 대해 말씀하신 先正의 말씀이 단청처럼 뚜렷합니다. 지난 승정 무렵에 선비들의 의논이 일제히 제기되어 善山府에 洛峯書院을 창건하여 김숙자를 제사지내면서 처사 金就成, 진사 朴雲, 부제학 金就文, 군수 高應陟을 배향하였습니다. 대체로 김취성, 김취문 형제는 박윤과 같이 文穆公 朴英에게 배웠고 박영은 교리 鄭鵬에게 배웠고 정봉은 선정 김굉필에게 배웠는데, 모두 김숙자에게서 근원이 나왔으며, 고응척은 또 그의 제자한테서 배워서 다같이 전수를 받았는데, 세상에 이른바 영남의 인재가 대부분 一善에 있다는 것입니다.”<sup>12)</sup>

선산지역의 이러한 학풍은 서책간행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즉 선산지역에서 배출된 학자나 인물의 문집이 상당수 남아있고 인물의 면면도 이러한 학풍과 연관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다.

그 밖에도 효열을 강조한 사회분위기에 부응하여 보편적으로 많이 간행되는 서책을 비롯하여 지역의 특정 사건을 소재로 서책이 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선산의 경우 「義烈圖」가 그 대표적 예이다.

또한 선산은 서책간행에 필수요소 중의 하나인 종이의 생산이 풍부했던 지역이었으며 실제로 예조, 관상감, 조지서, 교서관 등에 종이를 공납한 기록이<sup>13)</sup> 있다. 그 밖에 인쇄문화와 관련하여 각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鄭大興, 黃完石은 선산 지역의 이름난 각수로서 당시 중앙기관에서 차출한 인물로 1879년경 시강원에서 서책을 간행할 때 참여하기도 하였다.<sup>14)</sup>

12) 「正祖實錄」 권 22, 正祖10年 10월 28일 戊辰.

13) 崔峴, 「一善志」 貢納條

14) 「侍講院冊役所日記」, 刻字匠條.

### 3. 선산지역의 목판인쇄문화

일반적으로 책판은 서적을 간행할 목적으로 나무판에 글씨나 그림을 새겨서 제작한 것으로, 먹을 칠하고 종이에 인출하는 전통적 방식의 목판인쇄에 있어서 공력을 가장 많이 기울이는 재료였다. 즉 전통사회의 조직 내에서 지식유통의 거의 유일한 매체인 서적을 인쇄하기 위한 기본 도구였던 것이다. 선산지역에서 목판인쇄가 시작된 시점은 알 수 가 없지만 조선시대에 선산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전적들은 문헌의 기록과 실물의 출현으로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각종 「實錄」과 「攷事撮要」의 八道冊板目錄 및 「鏤板考」, 그리고 여러 종류가 남아있는 각종 冊板目錄類가 그것이다. 이 冊板目錄類는 당시에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책판들을 지역별로 수록하고 있으므로, 그 지방에서 간행된 전적들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들이다. 선산지역도 이러한 목록에 수록된 책판의 실물이 전해 지기도 하기도 하며, 책판은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에 인출하여 서책으로만 남아 있는 것도 있다.

#### 3.1 선산의 책판목록과 「善山府所在冊板記」

전국 지역의 책판에 대한 기록은 1554년 魚叔權이 편찬한 「攷事撮要」 중 八道 冊板目錄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攷事撮要」는 관리나 재야의 선비에게는 매우 긴요한 일용 類書이기 때문에 명종 9년(1554) 처음 편찬된 이후 영조 7년(1771) 서명응이 그 내용을 대폭 개정 증보하여 「攷事新書」를 출간하기 까지 무려 12회에 걸쳐 續撰과 改修를 거듭하였다. 책판목록의 내용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攷事撮要」에만 수록되어 있으며 1576년 간본이 현전하는 판본 중에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sup>15)</sup>

「攷事撮要」이후 官撰으로는 정조의 명으로 1796년 편찬된 「鏤板考」가 있다.

15) 金致雨, “朝鮮朝 前期 地方刊本의 研究-冊板目錄 所載의 現存刊本을 中心으로,” (박사 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학원, 1999. 5).

그 외에도 선산지역의 책판을 수록하고 있는 목록으로 여러 종류가 남아있는 각종 冊板目錄類가 있다. 이 冊板目錄類은 당시에 전국에 산재하여 있는 책판들을 지역별로 수록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책판 소장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와 같은 冊板目錄類는 「慶尙道冊板」, 「嶺南冊板」, 「冊板置簿冊」, 「三南所藏冊板」, 「諸道冊板錄」, 「完營冊板目錄」,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 「各道冊板目錄」, 읍지의 책판기록 등인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선산지역 간본이 수록되어있는 책판목록

번호	책판목록	편저자	년도	수록책 판중수	판본
1	攷事撮要	魚叔權	1576	10	乙亥字本
2	攷事撮要	魚叔權	1576	10	乙亥字覆刻
3	攷事撮要	許筭 續撰	1583	11	木板本
4	攷事撮要	許筭 續撰	1583	11	筆寫本
5	古書冊板有處攷		16세기말(20世紀寫)	10	筆寫本
6	古冊板有處攷		16세기말(20世紀寫)	10	筆寫本
7	慶尙道冊板		1730년경	4	筆寫本
8	嶺南冊板		1730	4	筆寫本
9	冊板置簿冊		1740년경	5	筆寫本
10	三南所藏冊板		1743년경	3	筆寫本
11	諸道冊板錄		1750년경	7	筆寫本
12	完營冊板目錄		1759	7	筆寫本
13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		1760년경	5	筆寫本
14	各道冊板目錄		1778년경	6	筆寫本
15	鏤板考	徐有渠	1796	11	筆寫本
16	林園十六志 京外鏤板	徐有渠		11	筆寫本
17	善山府所在冊板記			11	筆寫本
18	書冊目錄			14	筆寫本
19	各道冊板目錄		1840	8	筆寫本
20	冊板錄			17	筆寫本
21	藏板考		19세기	15	筆寫本
22	善山府邑誌			11	筆寫本
23	嶠南志	정원호 편	1940	13	鉛活字本

위의 책판목록 외에도 「全國寺刹所藏木板集」에서 桃李寺와 修多寺 冊板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의 책판목록 중에 17 번 「善山府所在冊板記」는 새롭게 알려져서 추가 되는 책판목록이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군단위의 독립된 책판목록으로 그 체제도 여느 책판목록과 차이가 있다.

「善山府所在冊板記」의 권수제는 「慶尙道善山府所在冊板及容入紙地懸錄成冊」이며 「善山府所在冊板記」는 표지서명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청구기호 B16C 8)으로 1冊(19張)의 필사본이며 책 크기는 27.5×18.7cm이다. 木板邊欄과 界線으로 10行이며 상하내향의 有紋黑魚尾 이다

수록내용은 처음에 서명과 서책수를 적고 각 서책의 서문, 발문, 표지명, 묘갈명 등이 있을 경우 서문 발문은 내용 그대로 싣고 있고 표지명이나 묘갈명은 축약하여 저자나 저자관련인물에 관한 내용만 게재하고 있다. 서문 발문이 없을 경우에만 “無”를 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책판의 소장처, 책판수, 소요되는 종이수량을 기록하였는데 책판수랑 다음에는 剝落의 유무를 표시하고 剝落이 있을 경우 그 수량을 기재하였다.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종이의 수요에 대한 단위가 다르고 몇 종이 인쇄에 드는 종이 수량에서 차이가 있을 뿐 루판고에 수록된 책판의 종수, 서명, 소장처 등과 일치하고 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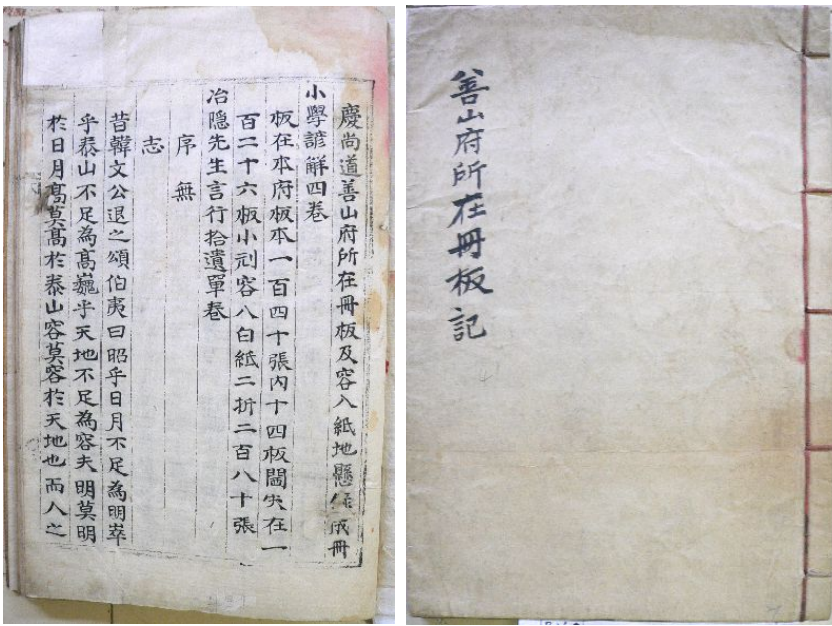
<표 2> 「善山府所在冊板記」의 내용

서명	책수	소장처	책판수	종이	「鏤板考」記錄	著者
小學諺解	四卷	本府	140張中 14板 闕失 在 126		十四牒	
治隱先生言行拾遺	單卷	金烏書院	35俱存 無剝落	容入白紙 2折7張	一牒 十五張	治隱 吉再의 行錄
三仁錄	單卷	金烏書院	20俱存 無剝落	2折40張	二牒	籠巖 金澗, 丹溪 河緯地, 耕隱 李孟專의 事蹟
兩賢淵源錄	單卷	金烏書院	25俱存 無剝落	2折49張	二牒 九張	鄭鵬의 事蹟과, 朴英이 詩文

龍巖先生文集	二卷	洛峰書院	65俱存 無刊落	2折130張	六牒 十張	朴雲
眞樂堂集	單卷	洛峰書院	21俱存 無刊落	2折42張	二牒 二張	金就成
久庵集	二卷	洛峰書院	45俱存 無刊落	2折90張	四牒 五張	金就文
認齋先生文集	九卷	松山書院	371俱存 無刊落	2折742張	十八牒 十一張	崔暉
敬菴先生集	三卷	松山書院	95俱存 無刊落	2折189張	四牒 十四張 一片	盧景任
喚醒堂逸稿	單卷	洛峰書院	23俱存 無刊落	2折45張	一牒 二張 一片	朴演
健齋逸稿	單卷	(洛峰書院)			二牒 六張	朴遂一

이 책의 작성배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루판고」의 작성과 관련하여 「루판고」작성의 기초자료로 쓰인 문건일 가능성이 있다. 「루판고」의 범례에도 밝혔듯이 “藏板簿”가 있었고 이는 곧 지방의 관아에서 작성하여 올린 기록에 의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그 당시 지방에서 작성하여 올린 자료일 가능성을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책의 형태적 특징(지질, 장황 등)이나 작성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 등은 이 책이 「루판고」작성당시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보고형태의 성책문서와 비슷한 양식을 보이고 있으나 관인이나 보고자의 성명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점, 지질의 시기가 19세기 이후로 처진다는 점, 마지막에 「健齋逸稿」의 기록에서 소장처 이하의 기록이 누락된 점 등은 이 책이 19세기 이후 옮겨 쓴 것임을 알게 한다.

아무튼 옮겨 쓴 것이라 하더라도 이 책은 책판목록으로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군단위의 독립된 책자형 목록이며 그 체제도 어느 책판목록과 다른 체제를 지니고 있으므로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옮겨 쓰기 이전자료의 베껴쓴 원고나 「루판고」와 이책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1> 「선산부소재책판기」의 표지와 첫장

### 3.2 조선전기 간행서적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전기 선산간행 서적의 책판목록은 1576년 魚叔權이 편찬한 을해자본 「攷事撮要」, 1583년 許筠이 續撰한 목판본 「攷事撮要」가 중심이 된다. 우선 1576년 을해자본 「攷事撮要」에 실린, 선산지역 책판 10종은 「佔畢齋」, 「孝經」, 「大學」, 「中庸」, 「或問中庸」, 「松都錄」, 「翻譯正俗」, 「三綱行實」, 「呂氏鄉約」, 「素問」 등이다.

이와 더불어 1583년 許筠이 續撰한 목판본 「攷事撮要」에는 위의 10종보다 1종이 많은 11종의 책판이 실려 있으며 1종의 책판은 「和劑方」이다.

책판목록이 기재된 다른 「攷事撮要」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16세기말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1939년에 옮겨 적은 것으로 알려진 「古書冊板有

處放」나 「古冊板有處放」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中庸」 1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같은 내용이다.

이들 11종의 책판과 「攷事撮要」에 기재되지 않고 실물자료로 남아 있는 것을 합하면 조선전기의 선산지역의 간본을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 현전하는 자료로 「攷事撮要」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물이 남아있는 자료로는 1573년 선산부에서 간행한 「治隱先生行錄」이 있다. 「攷事撮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간본의 서명이 밝혀진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한 조선전기 선산간본의 상황을 정리하면 총 12종으로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선산의 책판기록으로 처음 등장하는 「估畢齋」는 선산의 대표적 학자로 조선 전기의 문신 估畢齋 金宗直(1431-1492)의 시문집인 「估畢齋集」을 의미한다. 김종직이 죽은 다음해인 성종 24년(1493)에 그의 제자 曹偉(1454-1503)에 의하여 편집되었다. 책으로 간행된 것은 그로부터 4년 뒤인 연산군 3년(1497)에 鄭錫堅(?-1500)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이듬해(1498) 무오사화가 발발하여 김종직은 부관참시 당하였고 「估畢齋集」을 불사르게 하였기에<sup>16)</sup> 그의 문집도 세상에 전하여질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중종 15년(1520)에 저자의 생질인 康仲珍(1459-1520)이 본가에서 불태우다 남은 원고를 수습하여 善山에서 간행하게 되었다.

이 책은 후대에 몇 차례 더 새롭게 간행되었다. 인조 27년(1649) 경상감사로 있던 李旻(1605-1664)이 밀양의 禮林書院에서 간행한 것<sup>17)</sup>과 정조 13년(1789) 중간본<sup>18)</sup>, 김종직의 13대손 金植에 의하여 간행된 고종 6년(1869)본<sup>19)</sup> 등이 있

16) 「燕山君日記」 권30, 4년 7월 23일 丁巳.

17) 이 중간본은 선산본을 저본으로 하면서도 체제는 시집과 문집을 구분하여 詩集 5책, 文集 2책으로 구성하였고 남곤의 서문이 빠져있다. 판심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제 1권의 경우 선산본이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의 판심이지만 중간본은 上下大黑口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이다.

18) 1789년에는 중간본에 年譜와 “戊午土禍事蹟”, “門人錄” 등을 추가하여 다시 간행하였는데 여기에는 李獻慶(1719-1791)의 서문이 붙어 있다.

19) 고종 6년(1869)과 고종 29년(1892)에는 예림서원에서 詩의 수를 줄이고 김종직과 예림서원에 관련된 기록을 부록으로 추가한 9冊의 중간본과 修完本을 간행하였다.

다. 보물 1019-1-4호로 지정된 광산김씨가 소장인 5책이 선산에서 간행한 초기 간본으로 알려져 있으며, 南袞(1471-1527)의 서문이 붙어있는 영본 1책이 옥산 서원에 남아있다. 『淸芬室書目』에도 배삼익(1534-1588)의 아들 배용길(1556-1609)의 소장본으로 萬曆 丙子年(1576)에 얻었다는 목서기록이 남아있는 책을 수록하고 있다.

초기 간본인 선산본의 체제는 권두에 남곤의 序가 있고 제1책에 시집과 문집이 각각 1권씩이다. 제2책 역시 시집 1권, 문집 1권이며 나머지는 총 21권의 시집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집 23권, 문집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김종직은 부친 金叔滋(1389-1456)의 행적을 기록한 『彝尊錄』을 편찬하였는데 문집이 간행되던 1497년에 생질 姜伯珍(?-1504)에 의해 처음 간행되었다. 姜伯珍이 『彝尊錄』을 간행하면서 붙인 발문에 의하면 興海郡守로 재직하면서 판각하여 간행하고 善山에 판을 보관시킨다고 하였다.<sup>20)</sup> 이 책은 1558년에 盧慶麟(1516-1568)에 의해 중간되었으며 1649년의 문집 중간 때에는 예림서원에서 『彝尊錄』을 판각하여 李曼이 간행한 문집과 합본하여 유통시켰고 이후의 중간본에서도 이 체재를 따랐다.

『孝經』은 선산간본으로 명확하게 알려진 판본을 확인하기 어렵다. 『攷事撮要』에는 선산을 비롯하여 영남지방에는 안동, 경주, 대구 등 주요 간행지에서 대부분 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大學』, 『中庸』, 『或問中庸』도 조선전기에 선산의 간행기록이 있는 판본을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였다.<sup>21)</sup> 다만 『攷事撮要』를 통해서 볼 때 『大學』, 『中庸』의 간행은 주로 함께 간행되었고 간행지역도 영남의 경우 경주, 선산, 진주(중용), 성주(대학), 남해(중용)로 제한적이었으므로 현존하고 있는 無刊記의 『大學』 『中

20) 姜伯珍, 『彝尊錄識』, "...曲江雖小邑 非孔道也 伯珍又承公之式教 性不喜畢弋畋獵之事 浮費頗省 俸廩多羨 爰募遊手 俾之入梓 功既告畢 又慮茲郡之或失於保護也 迺聘數椽 移于吾鄉 一善之府司藏之 遂記其端 冀使金氏之宗與吾昆昆弟子孫之在鄉者 相守而勿失 爲永世楷範之重云..." 『韓國文集叢刊』, 第12集, 『佔畢齋集』, 影印本,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89)

21) 안현주, "조선시대에 간행된 『中庸』의 諸板本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32집 (2005.12) 鄭王根, "朝鮮時代に 刊行된 『大學』의 板本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全南大大學院, 2003).

庸」판본 중에 선산간본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或問中庸」은 선산과 해주지역에서만 책판기록이 남아있으므로 현존하는 조선전기간행의 「中庸或問」의 목판본이 선산지역에서 판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翻譯正俗」은 중종 13년(1518) 金安國(1478-1543)이 풍속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중국의 「正俗篇」에 구절을 달고 언해를 붙여 간행한 책인 「正俗諺解」를 말한다. 풍속교화를 바르게 하기위한 것으로 이 책과 「呂氏鄉約」, 「二倫行實圖」 등이 포함되었다.<sup>22)</sup> 「呂氏鄉約」과 함께 원전의 한문에 借字로 구절을 달고 한글로 언해하여 경상도의 한 고을에서 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앙에서 약간 수정하여 1519년에 중간하였다.<sup>23)</sup> 그 외에도 을해자본 및 선조 7년(1574)에 간행한 을해자북각본을 확인할 수 있다. 「三綱行實圖」도 간기가 수록된 인본이 나타나지 않아서 선산부의 책판이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4종의 책이 모두 풍속교화를 목적으로 중종에서 선조초기 년간에 집중적으로 간행된 자료라는 점에서 대략 그 시기로 추정해볼 수 있다.

「素問」은 조선초기 의학의 取才시에 講하기도 하였던 「皇帝內經素問」을 말한다. 이 책의 권수제는 「新刊增註釋文皇帝內經素問」으로 17세기이후 내의원에서 간행한 것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조선전기 간본으로는 고려대 신암문고에 있는 영본 1책을 확인하였다.

「和劑方」도 조선초기에 널리 알려졌던 중국의서로 초기 우리나라에서 여러 지역에서 간행된 중국의학서 중에 하나이다. 「增註太平惠民和劑局方」이 정식서명일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전기 간본으로는 日本 宮內廳 書陵部 소장의 10권 6책(영본)본을 찾아볼 수 있다.

「治隱先生行錄」은 선산 출신 治隱 吉再(1353-1419)의 시문과 행장을 수록한 책으로 1570년 尹之亨이 선산군수로 부임하여 金烏書院을 중수하고 5대손 吉誨로 하여금 간행하도록 한 책이다. 책의 내용은 李瑋가 그린 遺像을 비롯하여 權遇의 遺像贊, 金洵의 祠堂 壁上贊, 시문 약간 편과 행장, 諸賢의 贊詠詩 등이

22) 「中宗實錄」 13年 戊寅 4월 1일 己巳

23) 安秉禧, “中世語의 한글資料에 대한 綜合的 考察,” 『奎章閣』 3 (1978), 109-148.

며 鄉人 崔應龍의 跋을 붙여 1573년에 간행하였다. 계명대도서관, 충남대도서관 등에 이 초간본이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계명대본에는 金富儀(1525-1582)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 책의 중간본은 1615년에 간행되는데 6대손 吉興先, 吉宗先 등이 난리에 거의 없어졌던 초간본을 얻어 상권으로, 여러 임금의 賜祭文과 金烏, 吳山 두 서원의 창건에 관한 글을 卷中, 卷下로 편차한 후 張顯光의 跋을 붙여 「治隱先生言行拾遺」 3권 1책으로 重刊 하였다. 조선후기 선산지역 책관목록에 나타나는 「治隱先生言行拾遺」나 「治隱先生言行錄」은 이 중간본을 의미한다.

한편 조선전기에는 善山에서 필요한 책들을 자체적으로 간행한 것이 많지만, 상부기관의 命을 받아 책판 작성에 참여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주 간본중에 「莊子虜齋口義」, 「三國史記」, 「三國遺事」, 「二程先生傳道粹言」 등은 상부기관인 경상도의 명을 받아 경상도 列邑에서 分刊하고 경주부가 이를 모아서 간행한 것인데, 특히 「莊子虜齋口義」의 경우, 권말에 수록된 金宗直의 발문에 의하면 “세종조에 동활자(庚子字)로 인출한 이 책이 한 번 인출한 후, 再印되지 않고 세월이 오래되어 學士大夫의 집에서 家傳되지 않았는데, 갑오년 우연히 경상도 方伯 金永濡가 한 책을 얻어서 경상도 각읍에서 分刊하고 경주부에서 鳩集하였다”<sup>24)</sup>는 기록이 있고, 이어서 17개 慶尙道 列邑 “分刊各官”<sup>25)</sup>중에 善山都護

24) 「莊子虜齋口義」 卷末 金宗直 跋: ...昔在世宗朝使于上國者..用銅字印之是書..然一出之後不復再印歲月已久...歲 在甲午(1474)方伯金公永濡..偶得一本分刊各邑鳩集于慶州府..成化甲午七月日中直大夫咸陽郡守金宗直謹跋.

25) 「莊子虜齋口義」 卷末 印出記:  
兼觀察使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金永濡  
兼都事禦侮將軍行忠佐衛副司直 李世佐  
分刊各官

慶州府尹嘉善大夫 梁順石 判官承訓朗 趙達生  
安東大都護府使嘉善大夫 孫昭 判官奉訓郎 金成慶  
尙州牧使通政大夫 李全粹 判官通訓大夫 朴厚昌  
晉州牧使通訓大夫 尹子滌 判官奉訓郎 裴季厚  
星州牧使通政大夫 具達忠 判官奉列大夫 黃震孫  
密陽都護府使通訓大夫 林壽昌  
善山都護府使通訓大夫 柳宗壕

府使 柳宗壕 의 명단이 있어서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3> 조선전기 선산지역의 주요 간본

번호	서명	편저자	판본	간행처	년도	비고
1	佔畢齋集	金宗直	木板本	善山府	1520	攷事撮要
2	孝經		木板本	(善山府)		攷事撮要
3	大學		木板本	(善山府)		攷事撮要
4	中庸		木板本	(善山府)		攷事撮要
5	中庸或問		木板本	(善山府)		攷事撮要
6	松都錄		木板本			攷事撮要
7	正俗諺解	金安國	木板本	(善山府)	중종-선조전기	攷事撮要
8	三綱行實圖	실순	木板本	(善山府)	중종-선조전기	攷事撮要
9	朱子增損呂氏鄉約諺解		木板本	(善山府)	중종-선조전기	攷事撮要
10	新刊增註釋文皇帝內經素問		木板本	(善山府)		攷事撮要
11	增註太平惠民和劑局方	許洪(宋)	木板本	(善山府)	명종-선조전기	攷事撮要
12	治隱先生行錄		木板本	善山府	1573	崔應龍 跋文

이중에 「攷事撮要」에 기재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간본의 구체적 정황이 밝혀지지 않은 서책으로 「松都錄」이 있다. 이는 간본의 서명이 불확실한 다른 책판명과 함께 앞으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조선전기 선산지역 간본의 특징으로 간행의 주체는 대부분이 선산부일 것으로 여겨지며 그 주체는 전통적 四部分類法의 체계로 살펴보았을 때 일반관관 경서

大邱都護府使通訓大夫 崔灝元  
 陝川郡守中訓大夫 李繼童  
 咸陽郡守中直大夫 金宗直  
 靑道郡守通訓大夫 趙鋌  
 醴泉郡守通訓大夫 鄭從韶  
 榮川郡守通訓大夫 朴輜  
 梁山郡守奉列大夫 許謨  
 金山郡守通訓大夫 鄭蘭孫  
 豊基郡守通訓大夫 金若鈞  
 義城縣令通訓大夫 宋元昌

류나 교화서류 子部의 醫書 등이 문집이나 傳記 자료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正俗諺解」, 「三綱行實圖」, 「朱子增損呂氏鄉約諺解」 등의 전적은 국어사 자료로 가치가 높다.

### 3.3 조선후기 간행서적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초까지 전란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후여서 전국적으로 서책의 출판이 위축되었던 시기였다. 선산지역은 주변의 경주나 상주지역에 비하여 비록 많은 서책이 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 외의 지역에 비해서 꾸준히 서적간행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17세기 중반기 이후로 접어들면서 관관이 비교적 적은 반면에 서원이나 문중에서 보다 활발한 간행활동을 하게 되어 개인 문집이나 實記를 중심으로 한 私家版의 간행이 많았다.

조선후기의 선산지역 목판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책판목록에서 1796년 편찬한 「鏤板考」와 「書冊目錄」, 「冊板錄」, 「藏板考」<sup>26)</sup>의 내용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책판목록의 수록내용이 비교적 많고 다른 책판목록의 것이 대부분 이 4종류의 목록내용과 중복되거나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후기 책판의 내용 중에 「攷事撮要」의 책판과 일치하는 책명은 하나도 없다. 모두 양판을 겪으면서 소실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보인다. <표 4>는 조선후기에 작성된 책판목록으로 선산지역 책판을 그 서책에 따라 나누어서 배열한 것이다.

<표 4> 조선후기 책판목록의 선산지역 책판

책판목록	책판명	종수	
慶尙道冊板	高峰集 三仁事錄	松堂集 冶隱集	4
嶺南冊板	高峰集 三仁事錄	松堂集 冶隱集	4

26) 일본 천리대도서관 소장본으로 완영, 영영, 함영, 교서관 및 각 지역별 책판을 구분하여 기록한 목록이다.

冊板置簿冊	奇高峰集 論思錄 三仁錄	松堂集 治隱集	5
三南所藏冊板	三仁錄 治隱集	義烈錄	3
諸道冊板錄	德山李氏族譜 三仁錄 治隱集 兩賢淵原錄	玉山集 玉山草書 義烈圖	7
完營冊板目錄	德水李氏族譜 三仁錄 治隱集 兩賢淵原錄	玉山集 玉山草書 義烈圖	7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	高峰集 三仁事錄 松堂集	治隱集 提督集	5
各道冊板目錄	德水李氏族譜 三仁錄 小學諺解	治隱集 兩賢淵原錄 義烈圖事蹟	6
鏤板考	健齋集 敬菴集 久菴集 三仁錄 小學諺解 治隱言行拾遺	兩賢淵原錄 龍庵集 認齋集 真樂堂集 喚醒集	11
書冊目錄	健齋稿 敬菴稿 高峰稿 孤山草帖 久庵稿 三仁錄 治隱集	兩賢淵原錄 龍庵稿 義烈圖 認齋稿 認齋續稿 真樂堂稿 喚醒稿	14
各道冊板目錄	盧敬菴集 高峰集 三仁事蹟 小學諺解	松堂集 新堂事蹟 治隱言行拾遺 崔認齋集	8
冊板錄	健齋稿 敬菴稿 高峰稿 孤山草帖 久菴稿 德山李氏族譜 三仁錄 小學諺解 治隱言行拾遺	兩賢淵原錄 玉山集 龍庵稿 義烈圖 認齋稿 認齋續稿 真樂堂稿 喚醒稿	17

藏板考	健齋集 敬巖集 高峰集 黃孤山草書 三仁錄 西山集 小學諺解 松堂集	治隱集 兩賢淵原錄 玉山集 龍庵集 義烈圖 認齋集 喚醒堂集	15
善山府邑誌	健齋集 敬菴集 高峰集 三仁錄 小學諺解 治隱集	兩賢淵原錄 龍庵集 義烈圖 認齋集 喚醒堂集	11
嶠南志	健齋集 敬菴集 高峰集 久菴集 遜峰集 三仁錄 小學諺解	治隱集 兩賢淵原錄 龍庵集 義烈圖 認齋集 喚醒堂集	13

가장 많은 종수를 포함하고 있는 「冊板錄」에는 모두 17종의 책판이 파악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治隱言行拾遺」, 「兩賢淵原錄」, 「三仁錄」, 「小學諺解」, 「義烈圖」, 「玉山集」, 「德山李氏族譜」, 「高峰稿」, 「龍庵稿」, 「健齋稿」, 「喚醒稿」, 「認齋稿」, 「認齋續稿」, 「敬菴稿」, 「久菴稿」, 「眞樂堂稿」, 「孤山草帖」 등이다. 이는 14종을 수록한 「書冊目錄」에 「治隱言行拾遺」, 「玉山集」, 「德山李氏族譜」의 3종이 추가된 것으로 두 책이 비슷한 체재와 순서를 보이고 있다.

목록작성 당시의 소장처 표시로 「冊板錄」에는 落峯書院 3종, 松山書院 3종, 西山齋舍 2종이 있었던 것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두었다. 「書冊目錄」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충해보면 金烏書院에 3종 官庫에 1종, 李司諫宅에 1종이 소장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모두 임진왜란이후의 간본으로 파악된다.

1796년 徐有榘가 편찬한 「鏤板考」에는 모두 11종의 선산 책판이 수록되어 있는데 「書冊目錄」, 「冊板錄」의 선산지역 책판기록내용에 모두 포함된다.

그 외에 1750년경에 편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諸道冊板錄」과 1759년에 편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完營冊板目錄」에서 「玉山草書」 1종을 추가로 찾

을 수 있고, 1760년경에 작성된 「嶺湖列邑所在冊板目錄」에서 「提督集」 1종, 冊板置簿冊에서 「論思錄」 1종, 「各道冊板目錄」에서 「新堂事蹟」 1종과 이른 시기의 목록에는 대부분 있는 「松堂集」과 「治隱集」의 2종, 「藏板考」에서 「西山集」 1종, 「嶠南志」에서 「遯峰集」 1종 등 모두 8종을 추가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종 책판목록에 수록된 선산부의 책판을 찾아보면 25종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책판목록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선산지역 간행 목판본으로는 「陽灘先生文集」, 「浦渚先生集」, 등이 확인된다.

한편 선산지역 사찰에서 간행한 전적으로는 桃李寺의 「妙法蓮華經」, 「桃李寺事蹟」과 水多寺의 「千字文」과 「類合」이 있다.<sup>27)</sup> 도리사는 선산군 해평면 송곡리 太祖山에 있으며 직지사의 말사로 阿道가 창건하였고 3종 226판의 책판이 소장되어 있다. 숙종 12년(1686)에 개관된 「妙法蓮華經」 73판과 간기를 알 수 없는 「妙法蓮華經」 149판, 영조 45년(1769)에 개관된 「桃李寺事蹟」이 그것이다. 수다사는 선산군 무을면 상송리 연악산 기슭에 있으며 직지사의 말사로 신라 문성왕때 진감국사가 창건하였다. 「千字文」 15판과 「類合」 16판 등 모두 2종 31판이 金泉 直指寺에 소장되어 있다.

책판 중에 서예가의 서법을 위하여 판각한 책판도 있는데 黃耆老(1521-?)의 「孤山草帖」, 李瑀(1542-1609)의 「玉山草書」 등이 그러하다. 또한 서명이 불확실하거나 전후 간본과의 구분이 여의치 않은 서책들로 「提督集」, 「玉山草書」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앞서 조선전기 간본의 불명확한 서명과 함께 확인해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선산지역의 간본으로 명확하게 인본을 밝힐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보면 <표 5>와 같다. 이 중 몇 가지 주요 판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治隱先生言行拾遺」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615년에 張顯光의 跋을 붙여 3권 1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영조는 길재의 문집이 선산에 있음을 듣고 이를 들이라는 명을 내리기도 하였다.<sup>28)</sup> 1858년에는 후손들이 새로 수집한 저자의

27) 朴相國 編,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28) 「英祖實錄」 卷110,, 44年 5月 丁酉

시문과 여러 문헌에서 발췌한 저자에 관한 기록 및 후인의 讚詠詩를 모아 李彙寧이 교정을 본 「治隱集」을 간행하면서 原集인 「治隱先生言行拾遺」도 함께 판각하기도 하였다. 「治隱集」은 후손 吉民獻, 吉民益 등의 요청으로 李彙寧이 교정을 본 것으로 7권 3책의 목판본이다.

「高峰集」은 高峰 奇大升(1527-1572)의 문집으로 그의 손자사위인 趙纘韓(1572-1631)이 선산부사로 있던 인조 7년(1629)에 간행한 것이다. 조찬한은 기대승의 長子 奇孝胤의 사위이며 「高峰集」간행이전인 1614년에 「兩先生往復書」를 영암에서 간행하기도 하였다. 「兩先生往復書」는 본래 退溪書尺이라 하여 奇孝胤이 1558년부터 1567년 사이에 있었던 퇴계 이황과의 왕복서를 정리하여 놓았던 것에 이황의 손자 李安道(1541-1584)의 도움을 받아 1568년부터 1570년 사이의 왕복서를 더하여 정리한 것이다. 두 차례의 난리를 겪으면서 미처 간행하지 못하다가 사위 趙纘韓에게 간행토록 한 것이며 그가 선산부사가 되자 「高峰集」 3권 3책의 간행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論思錄」은 기대승이 經筵에서 進啓한 말을 「承政院日記」에서 뽑아내어 편집한 것인데, 「高峰集」이 간행된 다음 해인 인조 8년(1630) 趙纘韓에 의해 역시 善山에서 2권 2책의 목판으로 간행되었으며 「高峰集」에 합친 것도 있다. 「冊板置簿冊」의 「論思錄」은 바로 이 책을 말한다.

「玉山集」은 「玉山詩稿」 1책을 말한다. 저자 李瑀(1542-1609)는 율곡 이이의 동생으로 선산이 고향인 孤山 黃耆老의 사위이다. 그의 초서글씨를 판에 새긴 「玉山草書」가 책판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三仁錄」은 「三仁事蹟」 1책을 말한다. 선산에 거주한 金澗 河緯地 李孟專의 遺蹟을 간행한 것이다.

「兩賢淵原錄」도 선산지역 출신의 新堂 鄭鵬(1469-1512) 松堂 朴英(1471-1540)의 전기를 간행한 것이다.

「義烈圖」는 1703년 權尙夏가 편찬한 것으로 선산에 사는 金起年의 義牛事跡 및 烈女香娘의 事跡을 목판 그림으로 그리고 사적을 적어 간행한 책이다.

조선후기 선산지역 목판본 특징은 조선전기에 비하여 일반관판 경서류나 자부

등의 가 거의 없고 지역출신 인물의 개인문집이나 實記를 중심으로 한 私家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龍庵集」, 「喚醒堂逸稿」, 「健齋逸稿」 등과 같이 조부와 손자, 부자지간에 문집을 간행한 경우도 있고 「眞樂堂集」과 「久菴集」과 같이 형제가 모두 문집을 내기도 하였다. 이는 학맥이나 문중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후기 지방인쇄문화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조선후기 선산지역 간행 목판본

番號	書名	著者	冊數	刊寫年	備考	現在冊板所藏處
1	健齋逸稿	朴滲一	2권1책		冊板目錄,	밀양박씨 용암종택
2	敬菴集	盧景任	7권3책	1784	冊板目錄	
3	高峰集	奇大升	3권3책	1629	冊板目錄	
4	孤山草帖				冊板目錄	
5	久菴集	金就文	4권2책	(1791) 崔光壁 跋	冊板目錄	
6	論思錄	奇大升	2권2책	1630	冊板目錄	
7	德水李氏族譜				冊板目錄	
8	遯峰集				嶠南誌,	일선김씨 우윤공파
9	三仁事蹟	金澗, 河緯地, 李孟專 李尙逸 編	1책		冊板目錄	
10	西山集				冊板目錄 (藏板考)	
11	小學諺解				冊板目錄	
12	松堂集	朴英			冊板目錄	구미밀양박씨가
13	新堂事蹟	鄭鵬			冊板目錄	해주정씨 新堂公派
14	治隱先生言行拾遺		3권1책	1615	冊板目錄	
15	治隱集	吉再	7권3책	1858	冊板目錄	
16	陽灘集	金澣	1책			
17	兩賢淵原錄	朴晁 編	2권1책	(1660) 金應祖 跋	冊板目錄	
18	玉山詩稿	李瑀	1책	1680 李東溟 跋	冊板目錄	

19	玉山草書	李瑀			冊板目錄	
20	龍庵集	朴雲	4권2책	1778	冊板目錄	밀양박씨 용암종택
21	義烈圖	權尙夏 編.	1책	1703	冊板目錄	
22	認齋續集	崔峴	7권3책	1785	冊板目錄	계명대
23	認齋集	崔峴	13권별부 합9책	1778	冊板目錄	계명대
24	提督集				冊板目錄	
25	眞樂堂集	金就成	2권1책	1791	冊板目錄	
26	浦渚先生集	趙翼	35권18책	1688	浦渚遺書跋 韓國文集總刊	
27	喚醒堂逸稿	朴演	3권1책		冊板目錄	밀양박씨 용암종택
28	妙法蓮華經		73권		全國寺刹所藏木板集	桃李寺
29	妙法蓮華經		149권		全國寺刹所藏木板集	桃李寺
30	桃李寺事蹟	桃李寺			全國寺刹所藏木板集	桃李寺
31	千字文		15권		全國寺刹所藏木板集 (水多寺)	直指寺
32	類合		16권		全國寺刹所藏木板集 (水多寺)	直指寺

#### 4. 결 언

이상과 같이 선산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책판목록을 종합화하고 개별 서책의 상황을 밝혀서 선산지역에서 간행된 목판인쇄문화의 전체적 상황을 책판목록에 나타난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선산지역의 책판목록으로 새롭게 알려지는 「善山府所在冊板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책판목록의 편찬체제, 작성시기와 그 배경, 수록책판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조선시대 때 간행된 4종의 간본을 확인하였다.

보다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선산지역 간본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서 이를 체계화하고 그 간행배경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적으로 영남은 유교서와 불교서 간행활동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간행물이 생산되고 유통되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대구,

경주, 진주, 상주, 안동 등의 비교적 큰 고을을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어왔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고을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개별 간행물에 대한 언급만 이루어지고 있고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실제로 간행된 자료가 거의 없는 경우에 별다른 방안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지역이 서책의 간행에 관한 오랜 전통의 인쇄문화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사실 조선시대에 전국 郡 단위 이상의 각 고을마다에는 대부분 책판이 소장되어 있었고 서책을 간행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를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전통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연구와 같이 실제 간행된 서책의 규모, 종류, 실존여부 등을 파악하는 중간단계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 <原典>

- 「慶尙道邑誌」. 筆寫本. 奎章閣所藏本(奎666) 20冊中 제9 책 「善山府邑誌」  
「高麗史」. CD-ROM파일. 서울: 서울시스템(주), 2001.  
民族文化推進會 編. 「韓國文集叢刊」9. 「訥齋集」影印本. 서울: 同會 1989.  
民族文化推進會 編. 「韓國文集叢刊」12. 「佔畢齋集」影印本. 서울: 同會 1989.  
「善山府所在冊板記」. 筆寫本. 1冊. 藏書閣所藏本(B16C8)  
「新增東國輿地勝覽」. 影印本, 서울: 景文社, 1981.  
「侍講院冊役所日記」. 筆寫本. 1冊. 藏書閣所藏本(K2-2780)  
「嶺南邑誌」. 筆寫本. 奎章閣所藏本(奎12174) 34冊中 제3 책 「善山邑誌」  
「一善志」. 影印本. 韓國邑誌總覽(朝鮮時代私撰邑誌 21: 경상도편6) 서울 : 한국인문과학원, 1991.

<단행본, 논문>

- 강혜영. “남원지역의 인쇄문화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32집(2005.12)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문화원. 『2005 일반 동산문화재 다량실태조사』. 구미: 구미  
문화원, 2005.
- 權相老. 『退耕堂全書』. 서울: 退耕堂權相老博士全書刊行委員會, 1990.
-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66.
- 금오공대 선주문화연구소 편. 『治隱 吉再의 學文과 思想』. 善州文化研究叢書1.  
구미: 동연구소, 1994.
- 金志遠. 『一善續誌』(影印本). 구미: 선산문화원 1985.
- 金致雨. “『嶺南冊板記』所載 刊本의 分類的 傾向.” 『書誌學研究』 제24집(2002.  
12).
- 金致雨. “朝鮮朝 前期 地方刊本의 研究-冊板目錄 所載의 現存刊本을 中心으로  
-.”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학원. 1999.
- 朴文烈. “忠北의 冊板 文化財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6.3).
- 朴相國 編.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 安秉禧. “中世語의 한글資料에 대한 綜合的 考察.” 『奎章閣』 제3집(1978).
- 안현주. “조선시대에 간행된 『中庸』의 諸板本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32집 (2005.12).
- 嶺南大 民族文化研究所 編. 『嶺南文集解題』. 경산: 嶺南大出版部, 1988.
- 玉泳晷. “慶州地域 刊行 古典籍 資料에 대한 書誌的 研究.” 『어문론총』 제42호  
(2005.12).
- 柳鐸一. 『韓國文獻學研究』.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 尹炳泰. “한국의 書目에 대하여.” 『圖書館·情報學論集』 창간호(1984.4).
- 尹炳泰. “韓國地誌 속의 冊板에 대하여.” 『古書研究』 제12집(1995.12).
-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2.
- 윤상기. “경남 함양군의 서원판본에 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2집(2005.12).

-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서울: 一朝閣, 1995.
- 李惠性. “慶北 善山地方의 書院·洞宇에 대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육대학원. 1999.
- 이택용. “조선후기 지방의 민간목활자 ‘善山字’ 및 인쇄소에 대한 고찰.” 『古印刷文化』 제12호(2005).
- 張仁鎭. “嶺南文集의 文獻的 研究”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대학원. 2005.
- 鄭王根. “朝鮮時代に 刊行된 「大學」의 板本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대학원. 2003.
- 정형우, 윤병태 편,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 趙婷化. “朝鮮朝 後期 嶺南 官板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1996.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범우사, 1991.
- 崔峴. 「一善志」(影印本). 구미: 선산문화원, 1983.
- 崔峴. 「一善志」(國譯本). 구미: 구미문화원, 1998.

